

[한글 번역본 - 영문 원본 참조]

엘리엇, 현대자동차그룹에 보낸 비공개 서신 공개

홍콩 (2018년 9월 7일) – 엘리엇 계열 펀드의 투자 자문사인 엘리엇 어드바이저 홍콩(Elliott Advisors (HK) Limited, 이하 “엘리엇”)은 오늘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하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총칭) 이사진에게 지난 8월 14일 비공개로 보낸 서신을 공개하였다. 해당 서신의 내용 중 일부가 언론사 등에 부분적으로 유출되었기에, 엘리엇은 완전한 투명성을 위해 전체 서신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신은 www.AccelerateHyundai.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2018년 3월 28일 순환출자고리 해소 및 기업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룹 차원의 개편안 (“HMG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주, 애널리스트, 의결권 자문사 등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은 2018년 5월 21일 기존의 HMG 개편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구조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겸허한 자세로 주주 및 시장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엘리엇은 그 이후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편안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그룹과 어떠한 생산적인 논의도 진행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오늘 공개된 엘리엇의 서신은 현대자동차그룹이 투자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특히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또한 서신에서 엘리엇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업구조개편, 자본관리 최적화 및 주주환원 향상, 그리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및 전문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업개편 검토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엘리엇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영진이 기존의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할 뿐 아니라 향후 건전한 자본관리, 주주환원 정책 및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명성에 부합하는 최고의 이사진 구성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종합적인 개편안을 검토함에 있어 모든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엘리엇에 대하여

엘리엇 매니지먼트(Elliott Management Corporation)는 두 개의 다중 투자전략 펀드를 통해 미화 3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엘리엇의 대표 펀드인 엘리엇 어쏘시어츠 엘.피.(Elliott Associates, L.P.)는 1977년도에 설립되었으며, 동종 펀드 중 동일한 경영진이 관리해 온 역사가 가장 오래된 펀드 중 하나이다. 세계 각국의 퇴직연금, 국부펀드, 공공기금, 투자재단, 투자운용사 펀드 및 회사 임직원 등이 엘리엇을 통해 투자하고 있다. 엘리엇은 한국 시장과 기업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주주가치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이루어왔다.

보도자료 관련 질의:

뉴욕

Michael O'Looney

엘리엇 매니지먼트

+1 (212) 478-2687

mOlooney@elliottmgmt.com

서울

김기훈 대표 (Kyle Kim)

코컴포터노벨리(주)

+82 (2) 6925-1507

kihoon@korcom.com